버핏과 먹을래 하나님과 먹을래

(이사야 39:1~8)

1.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2.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6.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버핏과 먹을래 하나님과 먹을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버핏과 먹을래 하나님과 먹을래'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의 최고 경매가는 345만 6789달러라고 합니다.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약 35억 원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식사는 최고의 레스토랑도 아닌 고작 10달러 안팎의 저렴한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저에게 워렌 버핏과의 점심식사 티켓이 있다면 35억이 아니라 3억 5천에라도 팔아버릴 텐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포브스지에서 몇 번이고 세계 제일의 부자로 선정된 버핏은 오직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버핏과 점심을 먹는다는 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가 35억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를 통해서 축적한 재산은 8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와의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식투자를 가리키는 학원에서 천 마디 만 마디를 듣는 것보다도 버핏의 한 마디를

듣는 편에 투자한 것입니다. 식사를 통해 100억 200억도 벌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계 제일의 부자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것은 점심 한 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세상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대하는 마음가짐의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백분의 일은커녕 천분의 일이나 만분의 일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 덕분에 무슨 이득이 생기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집니다.
무엇 때문에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워렌 버핏에 대한 기대 만큼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워렌 버핏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나서 악수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며 악수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험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악수하는 체험은 신비로운 지식을 탐구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선민들이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보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돈이나 무병장수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혹은 워렌 버핏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많이 가진 자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니 보란 듯이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최고의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통령, 재벌그룹회장, 초대형교회의 목사, 석학, 뛰어난 예술가 등이 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하여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신기하게도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9장까지가 첫 부분이고, 40~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됩니다.
이 첫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핵심어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하겠다는 믿음이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안에 네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네 번째 유의사항이 드러납니다.

어제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기도를 통해 수명을 연장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기도로 인해 생긴 결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자 이 소식이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바벨론은 앗수르의 위세에 눌려서 아직 기를 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바벨론 왕 므로닥발라단은 엘람이라는 곳까지 밀려나서 지방의 영주처럼 나라를 다스리던 인물이었을 뿐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서신과 예물을 보냅니다. 이 사신단을 맞이한 히스기야는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죽을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쾌유된 것도 기쁜데 이 소식이 만방에 퍼져서 일약 유명인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기쁜 마음에 왕궁의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네 가지 유의사항 중에 네 번째가 등장합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죽음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훈수를 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의해서 멸망될 것이고, 다윗 가문의 자손들 중에서 왕세자들이 포로로 끌려가 환관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경고성으로 예언되어 오던 멸망이 히스기야의 훈수 기도로 말미암아 확정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멸망의 연쇄과정에는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아서 얻게 된 아들 므낫세가 얽히게 됩니다. 후에 므낫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맙니다. 성전 안에 인신제사를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왜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주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들의 마음에 자신의 모습이 위대하게 비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진 대단한 보화와 무기들을 모조리 보임으로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가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속성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때에 함께함은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실들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실들 중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에서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제일 실감나게 느끼는 사실이 현실이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북의 침략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 사실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침략을 받는 사건조차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핵전쟁을 한다 해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우길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적 체질 때문에 언제나 세상을 먼저 봅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먼저 보는 나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속성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보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상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상태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만 향해서 살아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뵙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 마음 채움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뵙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들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마음을 채우려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죽은 자는 하나님만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등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등진 세상은 하나님이 선수로 뛰시는 경기장이 됩니다. 이때에 내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셔서 역사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서는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손수 끼시는 장갑이 되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에 의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나의 지정의(知情意) 곧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서 장갑 삼으시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쁜 상태일 때에 생겨나는 지정의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삶이 진행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있다면 그때에 생각하고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도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단하시며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지정의를 통해 발현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될 정도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면 배우자의 행실이 어떻든 사랑스럽습니다. 자녀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느껴집니다. 사업장에서 돈이 벌리든 안 벌리든 기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생각과 행동과 결단은 모두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삶은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기쁘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두 번째 속성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속성은 하나님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경기장에서 손수 뛰시는 선수가 되실 때에 나는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은 시험에 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뛰시는 삶의 모습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성공도 아니고 부요함도 아니고 영예스러움도 아니고 마치 실패자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 계속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세상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함을 통해서 이 시험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소홀히 여긴다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대한 죽음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훈수를 둔 결과가 악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 실수가 있거나 그 사랑이 부족하셨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훈수를 두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형편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결정을 응원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설령 젊은 나이에 죽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훈수 기도

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도 바울이 가소로워 보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관점에서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 번복되어야만 은혜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믿음의 속성은 우리의 자아의식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정의를 장갑삼아서 뛰실 때에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괄목할만한 업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이 잘 될 때에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일들이 전부 나의 공로인줄 압니다. 장갑을 끼고 일하면 그 속에 손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때에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는 어린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위대함을 새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멸망 예언이 확정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아의식은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마지막 속성을 확인시키며 1장~39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께 대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는 네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유의사항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평생 지속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진정한 지복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네 가지 유의사항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의 의식을 유지함을 통해서 충족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